

명작 탄생시킨 25곳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예술이 좋다 여행이 좋다

수지 호지 지음, 최지원 옮김

모로코 탕헤르라는 도시가 있다. 아프리카 최북단에 자리한 이곳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브롤터 해협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다양한 문화의 교류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여러 언어 프랑스어, 아랍어, 영어가 혼용돼 쓰인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20세기 아방가르드 야수파의 창시자인 앙리 마티스는 이곳을 찾아 예술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이곳의 '밝고 풍부한 빛, 선명한 색채, 다채로운 햇살과 독특하고 아곡적인 건축물에 깊이 매료되었다.'

마티스는 탕헤르를 일컬어 '화가의 낙원'이라 불렀다. 그는 "풍부한 안료와 생동감 있는 붓놀림, 대조적인 패턴"으로 탕헤르 풍경을 작품에 담아냈다. 이 도시의 풍경은 마티스가 이전에 보았던 어느 도시와 달리 화려했다.



예술가와 일반인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남들이 대중 보고 지나치는 것을 예술가는 꿰뚫어 보는 것일 터다."

명작에 영감을 불어넣은 장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그저 그런 여행과는 다른 풍요와 설렘을 선사한다. '예술이 좋다 여행이 좋다'는 걸작이 탄생한 곳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책이다. 저자는 영국왕립미술협회 특별회원이자 미술사학자인 수지 호지로 그는 지금까지 예술, 역사에 관한 책 150권을 펴냈다. '현대 미술 100점의 숨겨진 이야기', '디테일로 보는 서양 미술' 등은 그의 대표작이다.

저자는 걸작에 영감을 불어넣은 인상적인 장소 25군데를 엄선했다. 책에는 호쿠사이의 판화속 후지산을 비롯해 수련이 만발한 지베르니의 모네의 연못, 조지아 오키프의 뉴멕시코 사막, 프리다 칼로의 '파란 집' 정원 등이 나온다. 또한 존 컨스터블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질까 두려워 화폭에 담았던 영국의 데담도 나온다.

"실제로 가봤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장소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온다. 오늘날 우리는 모네의 그림 덕분에 루앙 대성당과 생라자르 기차역을 금세 알아보며 빈센트 반 고흐 덕분에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밀밭과 교회를 처음 보고도 과거에 와 본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베네치아는 클로드 모네, 존 싱어 사전트, 카날레토 등

이 자신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한 도시다. 고갱의 그림 속 타히티는 상상력 산물이 많지만 "색채와 형태, 풍경은 오늘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타히티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데이비드 호크니가 형상화한 수영장의 배경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빛이나 색상, 분위기를 토대로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환기한다."

어린 시절에 봤던 풍경은 예술가의 인생을 지배하기도 한다. 달리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카다케스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세월이 흘러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감탄했다. 그 마을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시적이며 예술적이다.

"수려한 해안과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펼쳐져 있고, 사방에 부겐빌레아 꽃이 만발하며, 흰 벽에 푸른 대문과 창문이 달린 산뜻한 집들이 사파이어 빛깔의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곳이다."

대체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그림으로 그린 반면 어떤 이들은 극적이며 위험한 장소를 소재로 택하기도 한다. 저자에 따르면 터너의 '성 고트하르트 고개 악마의 다리에서 본 쉴레넨 협곡' (1802년),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뤼겐섬의 백악암' (1818년)이 그러한 예다.

예술가들의 사고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한편으로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세계는 넓고, 예술 작품에 영감을 준 장소 또한 많다는 사실과도 조우하게 된다. 책에 담긴 에이미 그라임스의 일러스트 작품 보는 즐거움은 보너스다.

<울렛북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티스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아프리카 최북단 도시 탕헤르. <울렛북스 제공>

믿음에 대하여

박상영 지음

박상영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노미네이트 작가다. 지난 2016년 문학동네신인상에 단편소설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돼 문단에 나온 그는 작품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장편 '1차원이 되고 싶어' 등을 펴냈으며 허균문학작가상, 신동엽문학상, 2019년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할 만큼 필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펴낸 연작소설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 세대의 서늘한 초상을 그린 작품이다.

최은영 소설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누군가 특이나 동업자가 자신의 글에 대해 공감해준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터다.

"박상영 소설을 읽을 때면 살아오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중략) 조만간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커다란 금이 간 유리창을 바라보는 사람, 그 유리창 밖으로는 폭설이 내리고 손에 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간다. 그 외롭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나는 이 책 속에서 오래도록 바라볼 수 있었다."

이번 책은 모두 네 편의 중단편을 엮었다. 각 작품이 시작되는 페이지에 주인공 이름이 붙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요즘 애들'의 김남준을 비롯해 '보름 이후의 사랑'의 고찬호, '우리가 되는 순간'의 유한영과 황은채,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하여'의 임철우가 그들이다.

유한영이 사랑하는 사람 임철우를 제외하면 주인공들은 모두 삼십대들이다. 각기 대학과 전공은 물론 나이, 집안 배경도 다르다. 작가는 이들을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등장시키며 의외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등 연작소설의 새로운 모티프를 선사한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

세르히 플로히 지음, 허승철 옮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나토 가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위기가 결국은 전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에서 독립했지만 그동안 '친러시아'와 '친서방'의 권력이 교차하면서 분열도 심했다.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조명해 책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서다. 현재 하버드대학 역사학과 석좌교수인 세르히 플로히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기원을 세밀하게 분석해 책을 펴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박사학위를 받고 30세 이후에 조국을 떠나 미국에 자리잡았다.

저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말에서 그들의 역사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은 축복받았지만 역사는 저주받았다"는 말은 오늘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를 아우른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라는 별명이 뒤따른다. 최근의 전쟁 또한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도 맞물린다.

유라시아 스텝의 서쪽에 자리한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그들은 동과 서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라는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가교 역할을 했기에 사람과 무역이 활발히 교류되었는데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등 다양한 제국이 만나는 장소였다.

우크라이나의 2000년 역사는 극적이고 매혹적인 역사다. 저자는 우크라이나가 형성되기 이전 흑해 연안 카이우에 거주하기 시작한 스키타이족, 슬라브족, 바이킹 등 여러 부족의 기원을 밝힌다. 또한 기독교를 수용하거나 외부세력에 대한 대반란을 일으키며 국가혁신에 도전했다가 영토가 분할되는 우역곡절 등을 조명한다.

<한길사·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식물의 전쟁

김용범 지음

"식물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새빨간 피를 흘린다면 숲은 온통 피투성이일 것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마냥 평화롭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도 때로는 모두가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경쟁을 벌인다.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우고, 희생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 방법을 열심히 찾으며 살아간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을 성취 도구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생물학자인 저자 김용범이 인간으로서 식물을 사랑하고 삶을 성찰하기를 바탕으로 식물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식물의 전쟁'을 펴냈다.

메타세쿼이아의 나무 줄기가 굵은 이유는, 중력을 거슬러 물을 높이 올려 보내는 힘을 견디기 위한 방편이다. 연잎은 땅 위의 종들과 경쟁을 피하고 물속에서도 산소 부족을 견딜 수 있도록 잎 뒷면에 반투명 조직이 발달하는 파격적인 구조 변형을 단행했다.

젊은 키 큰 나무를 만나면 당굴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고 자신이 타고 오를 나무를 죽이기도 한다. 귀화식물인 가시박 또한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다른 식물을 덮쳐 결국 죽게 만든다. '너 죽고 나 살자' 전략인 셈이다. 이렇듯 이 책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식물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를 다양한 전략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궁금한 학생이나 교사, 일반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식물의 생존 전략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식물이 전하는 깊은 통찰과 위로를 만나볼 수 있다.

<지성사·3만2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

